

연하곤란을 초래한 구인두부 신경초종 1례

연세의대·원주대학

심상열·양오규·백석인·윤강묵·박순일

신경초종은 뇌 및 척수신경의 근부등 비교적 짧은 신경의 신경초로부터 발생하고 단발성이며 피막이 있는 양성 종양이다.

1908년 Verocay가 처음으로 Neurinoma라고 명명한 이래 Peripheral Fibroblastoma(Penfield, 1930) Peripheral Glioma, Neuroma 및 Schwannoma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1935년 Stout에 의해 Neurilemmoma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이 종양은 1955년 Conley에 의하면 신체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하며 두경부에서 약 25% 이상이 나타나고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청신경에 가장 많고 다음이 후두, 인두, 구강의 순으로 나타난다.

구인두의 양성 종양은 편평상피 유두종이 가장 많으며 드물게는 지방종, 섬유종, 연골종, 신경초종등이 나타날 수 있다.

구인두 신경초종은 주로 미주신경, 설하신경등 주위 신경의 신경초에서 발생되며(Iliades and Wutson, 1967), 서서히 성장하므로 종물이 커지기 전에는 종물부 이물감, 압통외에는 특이한 증상이 없다.

저자들은 구인두 측벽에 4cm×4cm×5cm의 거대 종물로 연하곤란을 초래한 신경초종 1례를 치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이비인후과 영역에 희귀한 결석증 2례

연세대학교·원주대학

이석용·양오규·이영효·심상열

가야병원

김 재 선

이비인후과 영역에서의 결석증은 타영역에 비해서 비교적 드물게 발견된다.

편도 결석은 만성편도염 환자의 소여포를 채우고 있는 건락성 충전물의 중심부에서 발견된다. 어릴때 편도염을 자주 앓았던 성인에서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고, 증상으로는 구개내 이물감 및 악취를 환자 자신이 느

낀다. Keratohyalin이 축적되어 결석을 형성하고 있으며 염증이 동반되면 인두통, 이통, 연하통 연하곤란 등이 있을 수 있다.

비석은 비강내 이물, 응혈, 세균 가피 농후한 분비물 등이 핵이 되어 그 주위에 칼슘, 마그네슘등이 침착해서 형성된다. 성인에 따라서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구분되는데, 외인성의 경우는 비강내 이물에 의해서, 내인성의 경우는 기왕에 존재하던 비질화에 의해서 각각 비폐쇄가 유발되며, 비루에 지장이 초래되어 분비물의 울혈을 가져와서 비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성인, 여자에서 잘 생길 수 있으며 대개 편측성이고 비강저부에서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다. 대개 완만한 성장을 보이므로 상당기간은 아무런 증상없이 지내다가 비폐쇄, 비출혈, 악취나는 점액농성 분비물을 주소로 내원하는 수가 많다.

저자들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도 희귀하게 발견되는 편도결석 1례와 거대한 비석 1례를 최근에 치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비인강 이물 1례

순천향의대

박승훈·김미자·윤희병·홍정애·강주원

이비인후과 영역에 있어서 식도, 기관 및 기관지 이물에 대한 보고는 흔히 볼 수 있으나 비인강내의 이물에 관한 보고는 그리 흔하지 않다.

특히 소아에 있어서의 음식통로의 이물은 대개 식도의 제 1협착부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저자들은 최근 6개월된 소아에서 동전이 비인강내에 매복되어 있는 1례를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면서 소아에서 음식통로의 이물이 의심될 때에는 식도부위 뿐만 아니라 비인강부까지도 X-선 촬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姉妹에 發生한 鼻咽腔惡性腫瘍 1例

原子力病院

沈潤相·梁薰植

中央醫大

鄭 完 教

鼻咽腔惡性腫瘍은 解剖學的 特性으로 因해 多樣한

發現症狀를 나타낼 뿐 아니라 腫瘍을 發見한 때에도 상당히 進展된 狀態가 많아 预后가 不良한 事實은 여러 報告에서 지적된 바이다.

이 腫瘍은 다른 部位에 比하여 흔한 疾患은 아니나 地域 및 種族에 따라 많은 發生頻度の 差異를 나타내 東洋人, 특히 南部 中國人의 好發하며 家族 發生 傾向도 報告되고 있다.

著者들은 姉妹에서 發生한 鼻咽腔惡性 腫瘍 1例를 經驗하였기에 文獻考察과 함께 報告하는 바이다.

— 2 5 —

안면부 및 경구개부 기형을 초래한 거대 여포성  
치아낭종 1례

연세의대 · 원주대학

박순일 · 문태용 · 이석용 · 윤강목 · 심상열

여포성 치아낭종은 치아여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낭종으로서, 매몰 혹은 미립치아의 치관부가 완전히 형성된 이후에 치관부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사기질 상피 사이에 액체가 저류되어 낭종으로 발달된 것을 말한다. 여포성 치아 낭종은 전 치성낭종의 약 20%를 차지하며, 영구치에서 잘 생긴다.

하악골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매몰치아가 흔한 하악골의 제 3 대구치, 상악골의 견치에서 잘 볼 수가 있다.

안면부 기형이 나타날 때까지는 임상증세가 없는 것이 보통이나 종물이 커지면 안면부 기형과 함께 구개부 융기, 종물부위의 이물감, 압통 및 인접치아의 치근 흡수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드물게는 범랑종, 상피암 및 점막상피암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기 적출을 하는 것이 좋다. 진단방법으로는 X-선 촬영이 중요하며 이때에 치관주변부가 투명하게 나타난다. 저자들은 최근 안면부 기형 및 경구개 융기를 초래한 거대 여포성 치아낭종이 있던 15세 남자 환자를 치험하였기에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2 6 —

鼻腔內에 發生한 乳頭腫 1例

서울衞生病院

金洪權 · 金聖淑 · 金永福 · 朴秀萬

비강 및 부비동에 발생하는 유두종은 비교적 드문 양성종양으로서 수술적 제거후에도 재발이 잘되고 악성화되는 경향이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유두종의 3 Type중 특히 희귀한 균상 유두종은 Microscopically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으로 덮힌 Cornification의 형태를 보이며 출혈의 경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최근 55세 남자의 우측 비강측벽에 발생한 균상유두종 한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2 7 —

鼻腔 및 副鼻洞의 反轉性乳頭腫 2例

釜山浸禮病院

김백순 · 전병권

비강 및 부비동에 발생하는 반전성유두종은 매우 드문 양성종양으로 1854년에 Ward에 의해 기술되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증례 보고 되어 왔으며 수술 후 재발이 잘 되고 드물게 악성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계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질환이다.

이에 저자들은 약 8년전 개인의원에서 비용으로 진단받아 비용절제술을 받은 바 있는 환자와 약 2년전 역시 같은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에서 조직검사 결과 반전성유두종으로 판명된 2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2 8 —

비강 및 부비동에 발생한 거대한  
반전성유두종 1예

중앙의대

김정래 · 권평중 · 김중환

비강 및 부비동에 발생하는 반전성유두종은 극히 드문 양성종양으로 1854년 Ward가 처음으로 보고하였으며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본증이 논의되어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고례가 몇례 없었다. 비강 및 부비동에 발생하는 반전성유두종은 진성종양으로 비용과 현저히 다르며 제거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드물긴 하지만 악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반전성유두종으로 밝혀지게 되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제거해워야되며 계속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최근 저자들은 비출혈, 비폐색, 취각장애, 두통을 주소로 내원한 64세된 여자환자에서 좌측 상악동에 압박피사를 초래한 반전성유두종 1례를 치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아울러 보고하는 바이다.

It is a slowly growing tumor and treated as surgically.

We experienced a case of neurilemmoma of the oropharynx in a 28-year-old female who had noticed a gradual swelling of the left side of the oropharynx with swallowing difficulty for 6 months.

The tumor was removed successfully intra-orally under the general endotracheal anesthesia and verified pathologically as neurilemmoma.

— 22 —

**Two Cases of the Calculi which Are Rare in the E.N.T. Field**

**Seock Yong Lee, M.D., Oh Kyoo Yang, M.D.,  
Young Hyo Lee, M.D., Sang Yul Shim,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Wonju School of  
Med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Jae Sun Kim,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Kaya Hospital*

Compared with other medical parts, there are relatively rare cases of the calculi in the Otolaryngologic field. The authors have recently experienced cases of the tonsillolith and huge rhinolith. They were removed successfully under the local anesthesia. Small quantities of calcareous or gritty particles are often found in the center of the caseous plugs filling the crypts of the tonsil in chronic follicular tonsillitis. The patients usually give a history of repeated tonsillitis in the earlier years. The patient may be aware of a constant sensation as of a foreign body in the throat. The breath is often fetid. The tonsillar calculi was found to be the accumulated keratohyalin masses in the crypts.

The rhinoliths are rare in nasal cavity. They usually have a foreign body nucleus of bacteria, blood, pus cells, mucus, crusts,

or some foreign material from outside the body. They are largely composed of calcium and magnesium salts, principally carbonate with traces of sodium chloride. The condition is commonly found in adults and in female. They are usually unilateral and are located, in the majority of instances, in the lower portion of the nasal cavity. The first well documented cases of rhinolithiasis, however, were reported by Bartholin in 1654. Since then over 400 cases have been reported.

— 23 —

**A Case of Foreign Body in the Nasopharynx**

**Seung Hoon Park, M.D., Mi Ja Kim, M.D.,  
Hee Byung Yoon, M.D., Jung Ae Hong, M.D.,  
and Ju Won Kang,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School of  
Medicine, Soon Chun Hyang College*

There are many reported cases about foreign bodies in air and food passages in children, but not common about the nasopharynx. It is well known that the most of the foreign bodies in food passages are lodged at the first narrowing of the esophagus and this can be a cause of overlooking the foreign bodies in the nasopharynx.

The authors experienced recently a case of foreign body, a coin, lodged in the nasopharynx in a 6-month-old male baby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diagnostic radiological examination must be included the nasopharynx when suspected foreign bodies, especially in children so that it could not be overlooked.

— 24 —

**A Case of Nasopharyngeal Cancer in the Sister.**

**Youn Sang Shim, M.D., Hun Sik Yang, M.D.**

— 28 —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ancer Research  
Hospital*

**Wan Kyo Jeong,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Chung Ang University*

Some reports pointed out that the nasopharyngeal cancer presents not only various symptoms and signs due to the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the nasopharynx but also poor prognosis in the cases which are detected in advanced stage.

This malignant tumor is not common than that of the other area, and is quite different incidence according to the geographical area and races.

The oriental people especially southern Chinese have a high incidence and it was also reported to occur in the family.

Recently authors had experienced a case of nasopharyngeal cancer in the sister and report with review of literatures.

— 25 —

**A Case of the Dentigerous Cyst which  
produce the Facial and Palatal Deformity**

**Soon Il Park, M.D., Tae Yong Moon, M.D.,  
Seock Yong Lee, M.D., Kang Moek Yoon, M.D.,  
Sang Yul Shim,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Wonju School  
of Med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The dentigerous cyst originates through alteration of the reduced enamel epithelium after the crown of the tooth has been completely formed, with accumulation of fluid between the reduced enamel epithelium and the tooth crown. The dentigerous or follicular cyst comprises about 20% of all dental cysts. It usually occurs between 20 and 30 years of age but is occasionally seen in children or in old people. The most common sites of

this cyst are the mandibular third molar and maxillary cuspid areas, since these are the most commonly impacted teeth. Many of these cysts give no clinical symptoms until noticeable asymmetry of the face develops. Rarely it develops to an ameloblastoma, epidermoid carcinoma and mucoepidermoid carcinoma, so early removal leads to better result. Roentgenographic examination of the jaw involved by a dentigerous cyst will reveal a radiolucent area. Recently the authors have experienced a giant dentigerous cyst which produced the bony deformity of the maxillary and hard palate bone. The cyst was completely removed under the local anesthesia by Caldwell-Luc approach.

— 26 —

**A Case of Papilloma in the Nasal Cavity**

**Hong Kwon Kim, M.D., Sung Suk Kim, M.D.,  
Young Bok Kim, M.D., Su Man Park, M.D.,  
Jung Hee Kim, M.D., Kee Sung Lee,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Seoul Adventist Hospital*

The papilloma of the nose and the sinuses is uncommon benign neoplasm that was probably first described by Billroth in 1855 as a "villiform cancer":

It may polypoid or papilomatous in the nose or sinuses and is frequently multiple. Clinically, there are 3 types of the papilloma found in the nasal cavity and sinuses, vestibule, fungiform, inverting.

The vestibular type is the keratotic lesion arise from the squamous epithelium lining the vestibule of the nose.

The inverting type, which is covered by the columnar or metaplastic squamous epithelium is pliable, pink and tends to bleed quite easily.

The fungiform type is covered by the

— 29 —